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치원장



회의 일시 및 장소

2013년 9월 26일(목요일) 저녁 19:00, 유치원 1층 빛반 교실

참석 위원

학부모위원(5명) - 김윤희, 김진경, 신홍주, 유희섭, 이현정
교원위원(4명) - 양순실, 조문숙, 백윤미, 마혜란

의사일정

1. 2012학년도 결산서 보고
2. 1학기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검토
3. 2학기 교육행사 일정 검토
4. 유치원 급식 운영에 대한 자문

○ 간사 : 오늘 모임은 총 네 가지 안건에 대한 회의로서 2012학년도 결산서 보고, 1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검토, 2학기 교육행사 일정 검토, 유치원 급식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2학년도 결산서를 보고하겠습니다.

○ 양순실원장 : 우선 여러분의 도움으로 건물외관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가 날 씨관계로 다소 늦어지면서 안전면이나 보행에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 죄송합니다. 2012학년도 집행 결산서 내역 중 차이가 있거나,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학년도 유아학비를 동결하면서 교육청에서 학급운영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조금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항목의 지출이 없었습니다. 학부모부담수입 항목 중 현장학습비 예산과 결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산정할 때 교통비부분을 잘못 책정했던 부분 때문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인건비항목에서는 학급과 유아수가 늘면서 주방보조 조리사를 더 채용하면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유희섭위원 : 도서관의 도서 구매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 양순실원장 : 네. 매년 정해진 구매량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여름/겨울방학 추천도서, 초등학교 1학년 과목들과 연계된 도서들, 잦은 이용으로 낡아서 사용이 어려운데 유아들의 선호도가 높고 교육활동에 유용한 도서들, 4세 문학적 접근에 필요한 도서들을 조사, 구매해 매년 신간도서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간사 : 이 외에 결산서에 대해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학기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학 후 가정으로 배부되었던 조사 결과 안내 자료로 함께 나눔>

○ 신홍주위원 : 가정통신문 인쇄 배부에 대해서는 건의%가 많지는 않지만,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 그에 대한 전체 의견을 찬/반으로 묻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유희섭위원 : 핸드폰으로 보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진경위원, 백윤미위원 : 스마트폰에서 PC버전으로 하고, PDF 뷰어 다운받으면 보이던데요.
 - 간사 : 경우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순실원장 : 인터넷, 컴퓨터 사용이 다소 불편하신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편리함, 정보제공 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우리 아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습, 유용한 자녀지도 자료, 주말 나들이와 관련한 문화체험, 연령별 교육안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 또는 컴퓨터로 매일 들어가서 보는 데,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아이 생활, 교육활동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겸, 1주일에 1번 짬을 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위원, 김윤희위원 : 연령별 교육안에 우리 아이가 활동에 참여한 사진이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 찾는 재미도 있기는 해요.
 - 양순실원장 : 2013학년도는 일관성을 위해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2학기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가정통신문 인쇄 배부에 대한 부분은 항목을 만들어 한 번 전체 의견을 알아보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후 방과 후 특성화활동, 견학활동, 홈페이지 사진 탑재 등에 대해서는 가정에 배부한 내용 그대로 나누고, 추가된 의견은 없었음.>

- 간사 : 이 외에 1학기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학기 교육행사 일정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희위원 : 11월말에 하는 운동회는 가족들도 오는 건가요?
- 양순실원장 : 이 운동회는 유아들만 하는 작은 운동회입니다. 3세-앞구르기/유니바 넘기, 4세-홀라후프, 5세-줄넘기 등 1인 1기구 체육활동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려도 하고, 결과도 알아보는 자리로 작은 운동회를 합니다. 벌써부터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경위원 : 올해 발표회는 토요일에 진행이 되네요.
- 양순실원장 : 지난 해 평일에 오후, 저녁으로 진행했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올해는 토요일에 오전, 오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7반이 함께 하기엔 장소,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 연령별로 섞어 3반, 4반으로 나눠 오전, 오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신흥주위원 : 2/19에 중업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양순실원장 : 새학년을 준비하는 봄방학입니다. 단, 종일반 유아들은 2월말까지 계속 옵니다.
- 간사 : 이 외에 2학기 교육행사 일정에 대해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치원 급식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제공된 식단표를 보며 나눔>

- 김진경위원 : 전체의견은 아니지만, 몇 명의 어머니들과 만난 자리에서 급식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죽, 떡, 빵 등)을 제공하는 원도 있다, 반찬이 다소 부실한 것이 아닌가, 종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어떤 원에서는 ○○○○○잡채 식의 화려한 메뉴들도 있더라, 김이 나오는 날에는 반찬이 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등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 김윤희위원 : 모두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 아이들 집에서도 유기농재료로 해서 먹이는 경우도 있는데, 급식비를 더 인상하더라도 더 좋은 재료로 다양하게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 유희섭위원 : 아이들이 오후 3시나 3:30에 마치고 오면 너무 배고파하며, 간식을 다 먹더라구요. 사실 엄마입장에서는 애가 유치원에서 점심을 제대로 안 먹었나? 대체 어떻게 먹었길래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윤미위원, 마혜란위원 : 아이들에게 점심은 충분히 제공합니다. 잘 먹는 경우 2~3번 먹는 유아들도 있어요. 스스로 먹고 싶은 만큼은 다 먹고 있습니다.
- 양순실원장 :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아침을 제공하는 부분은 오전 7:30부터 등원할 수 있는 에듀케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원에서는 아이들이 오전 9시부터 다 등원하는 시간이 거의 10시가 다 됩니다. 이 때 다소 무거운 간식을 제공할 경우, 12시에 시작되는 점심에 영향을 주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전 간식은 음료위주의 가볍게 시작합니다. 단, 아침을 안 먹어 배고픈 유아에게는 더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찬의 종류는 가정에서처럼 여러 가지로 하기에는 어려운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조리사 두 분이 시간 내에 점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과 종류가 많아지면, 가격 대비 양도 줄어 들고, 아이들 편식지도에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뉴에 있어서는 메뉴명을 더 화려하게 꾸밀 수 있지만, 현재처럼 나가는 것은 본재료에 충실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메뉴명이 화려하고 새롭다고 해서 꼭 그렇게 제공이 될까요? 제육볶음이면 야채의 양이 많기 보다는 고기에 충실하게, 아이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제가 우리집 아이들이 먹는 것과 같은 것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장을 보는 것이구요.
- 김윤희위원 : 이렇게 아이들 점심에 신경을 쓰시는데, 모두 알 수 있게 급식메뉴사진을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 양순실원장 : 그런 방법도 있겠으나, 사진이란 것의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현정위원 : 저도 주변 엄마들과 얘기 나누면서 반찬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하루 이틀만 먹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다 먹는 것도 아닌데, 지금처럼 3가지 정도만해서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 양순실원장 : 급식비 인상과 유기농재료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는데, 사실 몇 년 전에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를 보니, 대다수가 재료로 인한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 김윤희위원 : 그랬군요. 그러나 지금 시기가 변했으니, 한 번 더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 양순실원장 :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한 번 더 조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귀가하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마음 쓰으신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실제 중 일반아이들은 3:30에 마치고 모이면 바로 오후 간식을 먹습니다. 배고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12시부터 먹어 오후 1시에 마무리되면 오후 특활을 2과목하고 마무리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의 활동량이 많습니다. 그러니, 귀가 때면 당연히 배가 고프니다. 그래서 귀가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 백윤미위원 : 그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배고픈 것 당연한 것 같아요. 저희 교사도 매일 12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면 3시 이후에는 배가 고파집니다. 활동량이 더 많은 유아들은 당연히 배가 고프는 시간입니다.
- 유희섭위원 : 그럼 오전 간식이 점심 먹는 양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차라리 오전 간식을 빼고, 점심 후 특활 하는 중에 비는 시간에 간식을 주면 어떨까요?
- 간사 : 사실 반마다 특활시간도 다르고, 점심 후 2시간정도 지났기에 간식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먹이고 귀가시키는 것도 그렇구요.
- 김진경위원 : 제 입장에서는 오후에 귀가하면 간식을 바로 챙겨 주기에 점심 후 바쁘게 간식을 먹고 귀가하는 것 보다는 오전에 간식을 먹고 점심 먹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 양순실원장 : 네. 이렇게 9명 위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모두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느끼시죠? 의견을 잘 조율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온 여러 의견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첨가하여 의견을 물어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유희섭위원 : 요즘 일본 방사능과 관련해 수산물도 원산지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원산지를 잘 알 수 없는 어묵의 사용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양순실원장 : 요즘 생선과 관련된 메뉴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걱정하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산물 사용 시 원산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묵의 경우, 브랜드 어묵을 끓는 물에 한 번 데쳐 기름을 빼고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 간사 : 이 외에 급식에 대해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유희섭위원 : 급식지도 시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 있거나, 안 먹을 때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 간사 : 말 그대로 급식지도이기 때문에 전혀 안 먹게 할 수는 없고, 정 싫다면 1개 정도는 맛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먹어봐서 싫다면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 이현정위원 : 오늘 안전에 대한 것은 아니나, 어떤 학부모님께서 제 메일로 도서대출 시 아이가 같은 책을 여러 번 빌려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간사 : 네, 아이가 선호하는 분야에 해당된 도서인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반복되는 경우, 다른 도서도 권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이상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실원장 :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조심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